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의혹 감사

감사원·국민권익위·환경부 일제히 착수 광주시·영산강환경청 특혜 여부 등 조사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들어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등이 일제히 감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의료폐기물 시설은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처리시설 허가를 취득, 관련 심의권과 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업무처리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시 환경생태국은 필수 행정절차를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처리시설 허가가 나도록 도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환경청 등에 따르면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H사의 인허가 취득 절차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등이 감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광주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심의권을 바탕으로 해당 폐기물 시설에 대해 사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강제하지 않은 배경과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서, 특정부서가 업무를 독단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등은 소속 기관인 환경청이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 등을 위반하고서 서둘러

업무를 처리, 해당 업체에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H사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등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도시계획 시설 결정(심의)'을 받지 않았는데도 최종 허가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환경청이 허가 결정을 하기 전 '해당 시설이 관계법령(타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를 광주시 등 유관 기관에 묻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와 환경청이 석연치 않은 행정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청으로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8개 관련법 저촉 여부를 문의 받은 시 기후변화대응과의 경우, 도시계획 업무 등을 맡은 부서를 배제하고서 '18개

관련법 모두 저촉사항 없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기후변화대응과 직원들은 "의도는 없으며 깜빡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업무선상에 있는 담당직원·계장·과장 등 3명이 동시에 실수를 저지르지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 기후변화대응과는 신규 사업의 경우 시설 허가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하지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령 기후변화대응과 입장이 맞을지라도 도시계획 심의 여부는 도시계획과의 권한이므로 상호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생태국은 기후변화대응과와 도시계획과의 협의가 없었음에도 시장과 감사원 측에 행정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나비축제장 봄소풍 제17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사흘 앞둔 28일 함평엑스포공원으로 봄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꽃밭을 거닐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40억대 광주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사 판다

토지 3만6938㎡·건물 8개동 등 내달 21일 낙찰자 결정

광주시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청사가 매물로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무안군 낙산도사로 청사를 이전한 후 장기간 방치된 광주시 북구 매곡동 옛 청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토지 4필지 3만6938㎡, 건물 8개동 1만209㎡, 공작물 7개소 및 수목 26종이다. 재산평가액은 341억원이다.

매각 일정은 5월1일부터 2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1일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옛 전남도교육청은 입지조건이 좋아 주택업계에서는 알짜배기 택지로 손꼽히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서광주나들목 부근에 있어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다. 또 인근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대공원, 광주문화회

술회관 등 광주의 대표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광주종합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도 가까워 주거생활이 편리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매곡동 청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지구로 포함됐다가 지난 2013년 수정 계획때 제외되면서 매각에 나서게 됐다"며 "청사가 매각되면 열악한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농협카드 등 3사 기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경수 부장검사)은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4, 해질 19:16, 달뜨기 14:52, 달지기 02:59

비오는 날의 편지
중국 상해부근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호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호리고 비	14/22
목포	호리고 비	15/19
여수	호리고 비	15/18
나주	호리고 비	14/21
완도	호리고 비	15/18
구례	호리고 비	14/21
강진	호리고 비	15/18
해남	호리고 비	15/18
장성	호리고 비	14/20
순천	호리고 비	15/19
영광	호리고 비	14/20
진도	호리고 비	16/19
전주	비온뒤 맑	16/25
군산	비온뒤 맑	15/24
익산	비온뒤 맑	14/25
홍산도	호리고 비	14/17

지역	바다 날씨	기온
서해	안바다	11~02
남부	안바다	23~37
남해	안바다	06~10
서부	안바다	18~50
동해	파고(m)	0.5
남동	파고(m)	0.5~1.5
북동	파고(m)	0.5~1.0
남서	파고(m)	1.0~2.0
북서	파고(m)	2.0~2.0

생활지수	지수
수면	90
운동	20
빨래	20

날짜	날씨	기온
30(목)	구름	15/27
5/1(금)	맑음	12/29
2(토)	구름	13/27
3(일)	구름	15/21
4(월)	구름	15/21
5(화)	구름	12/25
6(수)	구름	11/27

60대 남자 시신 5개월만에 자택서 발견

경찰, 방치한 아내 조사

60대 남성이 숨진 지 5개월 만에 백골화된 상태로 자신의 주택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30분경 광산구 소촌동 김모(68)씨의 1층 주택에서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안방에서 이불에 덮인 상태였다. 시신 일부는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이후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아내 임모(64)씨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임씨는 지난 12월 말부

터 집을 나와 인근에 살고 있던 친구 서모(여·64)씨의 집 등 지인 집을 옮겨다 니며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임씨가 오랜 기간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김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몸이 불편했던 남편이 지난해 12월 갑자기 숨졌다.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분명히 한 뒤 시신을 방치한 아내를 시신 유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교차로 직진신호 좌회전' 운전자 혼란...경찰 홍보 활동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호체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은 7월 까지 전국 1330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아니라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다면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교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담적은 **보청기 렌탈**

부모님께 **효도선물** 하세요!!

부담적은 월 **3~4만원**으로 수백만원짜리 보청기 선물하세요!!

-대한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자율성의 주위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회 : 심의번호 2015-GN1-04-0011

대한보청기 소식

평생 가입비 242,000원 월 렌탈료 | 40,000원

평생 가입비 280,000원 월 렌탈료 | 48,000원

평생 가입비 280,000원 월 렌탈료 | 48,000원

5월 한달!! 효도의달 특별 모델 선정!!
(5월 한달 한정! 보청기 구입 시 30~40%할인)

인기 상품

01 | 맞춤 귀속형 한달 3~4만원!

02 | 제반서비스 전무무료!

03 | 무료 방문 홈 서비스!

04 | 천사 안심 손실 보장 제도!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순천·여수 본점 **0611741-488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